



INCHEON UNITED
SPONSOR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THE UNITED

OFFICIAL MAGAZINE

2025.11.23 / 제9호

MATCH PREVIEW

승리와 함께 첫 트로피 세리머니 즐긴다

BLUEMAN INTERVIEW

‘튼튼한 우승 주역’ 이주용
“좋은 팀에서 뛸 수 있어서 감사하다”

ROOKIE INTERVIEW

‘세계 무대 경험’ 백민규
“작년보다 더 많은 점을 배운 한 해”

UTD REPORT

인천 승격의 주역들을 소개합니다
기꺼이 박수를 보내는 또 다른 이름들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all ways INCHEON



제9호 THE UNITED / 발행일 2025년 11월 23일 / 등록번호 영등포라00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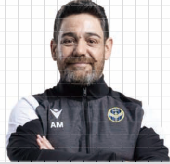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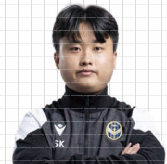
배포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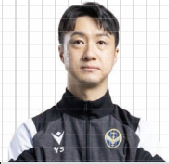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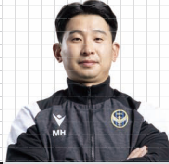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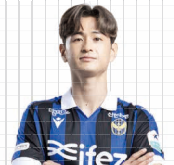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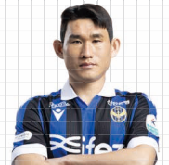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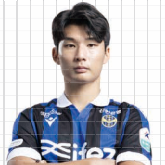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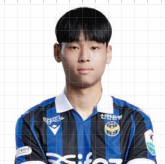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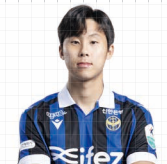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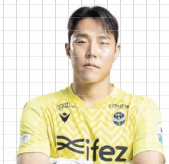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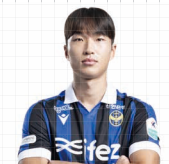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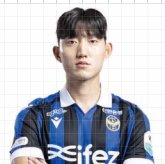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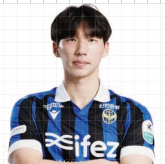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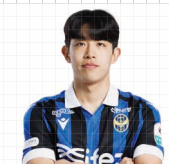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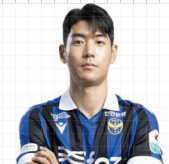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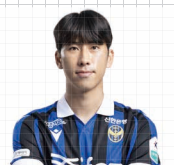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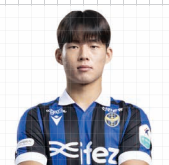
기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자단 / 디자인-인쇄소 발행소 (주)더스포츠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유희팩커드빌딩 19층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할 수 없습니다.



INCHEON UNITED 2025 SQUAD

 윤정환 감독 HEAD COACH	 이호 수석코치 COACH	 아벨 코치 COACH	 정혁 코치 COACH
 김정훈 수석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혁 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김진영 통역 INTERPRETER
 오승기 통역 INTERPRETER	 조용희 장비담당관 KIT MANAGER		

 1 민성준 GOAL KEEPER	 3 이상기 DEFENDER	 4 김건희 DEFENDER
 5 이명주 MIDFIELDER	 6 문지환 MIDFIELDER	 7 김도혁 MIDFIELDER
 8 신진호 MIDFIELDER	 9 무고사 FORWARD	 10 이동률 FORWARD
 15 임형진 DEFENDER	 16 이가람 MIDFIELDER	 17 김성민 FORWARD
 18 백민규 FORWARD	 19 김민석 FORWARD	 20 멜브리지 DEFENDER
 21 황성민 GOAL KEEPER	 22 성힘찬 FORWARD	 23 박경섭 DEFENDER
 24 강도욱 MIDFIELDER	 25 이범수 GOAL KEEPER	 26 강윤구 DEFENDER
 27 김보섭 FORWARD	 28 김건웅 MIDFIELDER	 29 강민성 FORWARD
 30 서동한 FORWARD	 31 이상현 GOAL KEEPER	 32 이주용 DEFENDER
 33 김현서 MIDFIELDER	 39 김명순 DEFENDER	 77 박승호 FORWARD
 88 정원진 MIDFIELDER	 94 쇼타 FORWARD	 95 이태희 GOAL KEEPER
 97 김동현 GOAL KEEPER	 99 박호민 FORWARD	

2025 SCHEDULE

1R	02월 22일 (토) 14:00	2	인천 : 경남	0	인천축구전용
2R	03월 01일 (토) 14:00	2	인천 : 수원	0	인천축구전용
3R	03월 09일 (일) 16:30	2	성남 : 인천	1	탄천종합
4R	03월 15일 (토) 14:00	1	인천 : 서울E	0	인천축구전용
3R	03월 23일 (일) 14:00	3	인천 : 춘천시민	0	인천축구전용
5R	03월 29일 (토) 16:30	1	인천 : 부산	1	인천축구전용
6R	04월 05일 (토) 14:00	0	화성 : 인천	1	화성종합
7R	04월 13일 (일) 14:00	2	인천 : 충북청주	1	인천축구전용
3R	04월 16일 (수) 19:00	2	인천 : 평창	1	인천축구전용
8R	04월 19일 (토) 14:00	3	인천 : 천안	0	인천축구전용
9R	04월 26일 (토) 16:30	1	부천 : 인천	3	부천종합
10R	05월 04일 (일) 16:30	3	인천 : 김포	0	인천축구전용
11R	05월 10일 (토) 19:00	0	충남아산 : 인천	3	아산이소신
3R	05월 14일 (수) 19:00	3	울산 : 인천	0	울산문수
12R	05월 18일 (일) 16:30	0	안산 : 인천	2	안산와~
13R	05월 25일 (일) 16:30	2	인천 : 전남	0	인천축구전용
14R	06월 01일 (일) 19:00	3	천안 : 인천	3	천안종합
15R	06월 08일 (일) 19:00	1	인천 : 부천	0	인천축구전용
16R	06월 15일 (일) 19:00	1	수원 : 인천	2	수원월드컵
17R	06월 21일 (토) 19:00	2	인천 : 화성	0	인천축구전용
18R	06월 29일 (일) 19:00	1	김포 : 인천	1	김포솔더
19R	07월 05일 (토) 19:00	2	전남 : 인천	1	광양축구전용
20R	07월 13일 (일) 19:00	2	인천 : 충남아산	1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20일 (일) 19:00	0	경남 : 인천	2	창원축구센터
22R	07월 27일 (일) 19:00	4	인천 : 안산	2	인천축구전용
23R	08월 02일 (토) 19:00	0	서울E : 인천	0	목동종합
24R	08월 09일 (토) 19:00	0	부산 : 인천	2	구덕운동장
25R	08월 16일 (토) 20:00	1	인천 : 성남	2	인천축구전용
26R	08월 24일 (일) 19:00	0	충북청주 : 인천	4	청주종합
27R	08월 30일 (토) 19:00	1	인천 : 충남아산	1	인천축구전용
28R	09월 07일 (일) 19:00	1	부천 : 인천	0	부천종합
29R	09월 13일 (토) 19:00	3	천안 : 인천	4	천안종합
30R	09월 20일 (토) 19:00	1	인천 : 김포	2	인천축구전용
31R	09월 28일 (일) 19:00	0	서울E : 인천	0	목동종합
32R	10월 04일 (토) 16:30	0	화성 : 인천	1	화성종합
33R	10월 08일 (수) 14:00	1	인천 : 수원	1	인천축구전용
34R	10월 12일 (일) 16:30	2	성남 : 인천	2	탄천종합
35R	10월 19일 (일) 14:00	0	안산 : 인천	1	안산와~
36R	10월 26일 (일) 14:00	3	인천 : 경남	0	인천축구전용
37R	11월 02일 (일) 14:00	0	인천 : 부산	0	인천축구전용
38R	11월 08일 (토) 14:00	2	전남 : 인천	1	광양축구전용
39R	11월 23일 (일) 14:00		인천 : 충북청주		인천축구전용

- 경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미어린 일정은 추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 변경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s CHUNGBUK CHEONGJU PREVIEW

‘2026 K리그 합류’ 인천, 올해 마지막 경기 승리와 함께 첫 트로피 세리머니 즐긴다

글 = 지문호 UTD기자 (jimh2001102@naver.com)

K리그 복귀 확정 후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인천이 올해 마지막 경기에 충북청주FC를 안방으로 불러들인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오는 11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충북청주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2 2025’ 39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인천은 지난 8일 치러진 전남과의 3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1:2로 패배했지만 신선한 조합을 만나볼 수 있었다. 전방에 서동한, 소타, 성희찬이 리그에 처음으로 출전했다. 특히 대건고를 졸업 후 올해 프로로 직행한 성희찬이 처음으로 피치 위에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도혁, 김민석 등 출전 시간이 다소 적었던 선수들이 스타팅 멤버로 나섰다. 이날 경기 전반전에는 막바지 승격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남의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선수단 전체적으로 좋은 조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후 후반전에는 발디비아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며 아쉬움을 삼켰지만, 후반 추가시간 11분에 김보성의 현란한 움직임에 이은 크로스를 박호민이 머리로 밀어넣으며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로써 인천은 올 시즌 치른 41경기 중 36경기에서 득점을 올리며 압도적인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다.

충북청주는 지난 라운드 서울이랜드를 홈으로 불러들여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후반 막판에 2골을 내어주며 0-2로 패배했다. 전반전은 무실점을 만들어냈으나, 75분과 85분에 각각 허용준과 박창환에게 실점했다. 이로써 충북청주는 9월부터 현재까지 11경기째 무득점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최근 득점은 8월 30일 부산전 홈경기 (2-2 무)이다. 반면 충북청주는 공격력이 다소 떨어졌음에도 무득점 기간동안 13골을 실점하며 경기당 약 1골만을 허용했다. 충북청주의 수비 조직력이 잘 갖춰져 있어, 인천은 이를 잘 뚫어야 한다.

인천은 지난 8월 청주 원정에서 4골을 몰아치며 4-0으로 완승을 거두었다. 백민규가 좌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선보이며 선제골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이후 제르소의 환상적인 감아차기 중거리골, 박호민의 강력한 중거리포, 박승호의 감각적인 니어포스트 골이 터지며 1,000명이 넘는 원정 팬들에게 한여름 밤에 즐거움을 선사했다.

인천은 올 시즌 홈에서 단 2패만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홈 성적을 기록했다. 우승을 이룬 만큼, 선수 개인의 기록에도 욕심을 내볼 수 있다. 무고사의 2년 연속 득점왕이 눈앞이고, 김건희의 베스트11 최다 선정은 확정되었다. 김건희는 리그 출전시간도 현재 부천 김형근 골키퍼와 3,842분으로 공동 1위이다. 이날 경기 추가시간 길이에 따라 1위가 갈릴 전망이다. 이외에도 올 시즌 좋은 활약을 선보인 선수들이 2025 K리그2 베스트11 선정을 노리고 있다.

인천은 이날 경기 종료 후 창단 첫 “트로피 세리머니”를 진행한다. 지난 해의 상처를 한 시즌만에 말끔히 씻어내는데 성공하고, 다시 K리그 무대로 진입할 준비중이다.



‘튼튼한 우승 주역’ 이주용 이렇게 좋은 팀에서 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글 = 이지우 UTD기자(jw2000804@naver.com)



시즌 내내 정상적의 자리를 지킨 인천유나이티드가 K리그2 우승을 확정했다. 참가 팀 중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인천은 팀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천으로 복귀하여 측면에서 큰 존재감을 보인 부주장 이주용이 있었다. UTD기자는 꾸준한 활약으로 팀을 지킨 이주용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배우에 끝이 없었던 2025년의 이주용

Q. 어느덧 시즌이 거의 끝나간다. 바쁘고 격렬한 시즌이었는데 몸 상태는 괜찮은지 궁금하다.

지금도 큰 문제없이 아주 좋다. 감독님, 코치님이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1년 내내 잘 뛰었다. 팀 훈련을 보면 주마다 패턴이 있는데, 일정한 흐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몸 관리가 수월했다.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훈련하다 보니 내 피로도도 조절할 수 있었다.

Q. 프로에서 10년 넘게 된 베테랑이지만, 올해에 운정한 감독님과 함께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이 있는가?

선수로는 많은 나이이지만, 지금도 축구 실력이 늘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한 해였다. 예전부터 선배들이 축구 실력은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조언을 주셨는데 그게 사실이었다. 감독님이 전술, 개인 모두 세심하게 챙기면서 도움을 주셨다. 그래서 감독님과 대화해보면 내 습관까지 모두 아시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짚어 주신다.

내가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는 역할인데, 예전보다 중앙지향적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 윙어를 향해 패스 주는 길을 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감독님께 이 상황을 여쭙았는데, 고민하시다가 다음 날 출근하셔서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신 뒤 떠오른 답변을 주셨다. 그런데 훈련장에서 그 대로 공을 찼더니 진짜 되더라. 감독님과 지내면서 전술 이해도도 높아졌고 감각도 좋아지면서 발전한 시즌이었다.

Q. 방금 얘기했듯이 빌드업을 전개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과거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뛰었지만 올해는 후방에 자주 머물렀다. 올해 맡은 역할이 성과와 잘 맞았는지 궁금하다.

잘 맞았고, 재밌었다. 감독님께서 후방 빌드업도 중요하지만 역습을 당할 때 처음으로 저지해 주는 역할을 항상 원하셨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역할이었지만 이 역시 재밌었다. 선수는 팀이 어떤 전술을 선택하면 잘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응이 성공적이었다.

Q. 주장단의 일원이었다. 부주장으로 충분히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는가?

늘 부족하긴 하다. 그래도 (이)명주 형, (김)도혁이 형, 그리고 (민)성준 이와 함께 열심히 역할을 수행했다. 명주 형과 도혁이 형은 워낙 팀에 오래 있었기에 말할 것도 없고, 성준이도 또래 선수들을 잘 챙겨줬다. 주변에 이런 동료들이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 다들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잘 수행해 줬고, 나는 좀 더 말해주고 분위기를 이끌어 주는 쪽에 집중했다.



축구에 진심인 팬들과 함께해서 더 감사했던 우승

Q. 리그 우승을 확정된 뒤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우승 당일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오히려 실감이 안 났다. 약간 건방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우승이라는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Q. 팬분들이 우승 직후 축구센터까지 찾아와서 버스 맞이 응원을 해주셨다. 현장에서 이 모습을 접하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이 오셨다. 다른 팀에서 우승해 본 적이 몇 번 있지만, 선수단이 생활하는 클럽하우스까지 와서 축하해주시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이분들이 축구에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팀에서 뛴다는 점이 감사했다. 이 팀에 내가 있는 것은 정말 복이다.

Q. 인천의 유튜브 콘텐츠인 '피치 위에서'에서 보여준 모습이 화제가 됐다. 우승 당일 반응을 보고 '혹시 MBTI T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수들과 축하 파티도 했고, 나도 기분이 정말 좋았다. 다만 우리는 그간 준비해 온 과정과 전력을 뽐낼 때 당연히 우승해야 하는 팀이라고 생각했다. 소중하고 행복한 하루였지만, 예상한 결과인지만 신비로운 느낌은 없었다.

Q. 인천이 시즌 대부분을 1위로 보냈다. 어떤 시점부터 자신감이 확 올라와서 이 자리를 굳혔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동계 전지훈련 때 이미 느꼈다. 선수끼리 얘기했는데, 올해 내내 한 번도 안 질 줄 알았다. 그 정도로 확신이 들었다. 리그 초반 성남FC에 진 적이 있지만 그 후 경기를 계속 뛰면서 우리를 이길 팀은 없었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서 6월에 수원삼성블루윙즈를 원정 경기에서 이긴 순간 '올해 우승은 우리가 하겠구나'를 느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이주용과 인천

Q. 인천이 K리그으로 복귀를 앞두고 있다. K리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당연히 충분한 경쟁력을 지녔다고 본다. 정말 확신이 드는 점은 팀의 체계가 잡혀 있다는 부분이다. 스케줄, 훈련 퀄리티, 전술 등 이렇게까지 완성도가 높은 팀에 몸담고 있는 게 거의 처음이다. 내년 시즌이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된다.

Q. 인천이 다음 시즌에 노력할만한 목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윤정한 감독님이 강원FC에 계실 때 K리그1 준우승을 하셨는데,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 좋은 선수들이 들어와서 함께 시즌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리그 최상위권까지 갈 수 있다.

Q. 올해 팀이 K리그2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기를 찾아주셨다. 팬들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궁금하다.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팬들의 응원이 지남 힘을 잠시 잊고 있었다. 그런데 홈 개막전에 버스가 경기장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응원을 보내주시는 순간 정신이 됐다. 팬들의 힘이 엄청나구나 싶었고, 정말 힘들 때 팬들 덕분에 한 발짝 더 뛸 수 있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뛸 수 있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다.

Q.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올 시즌은 정말 감사한 한 해였다. 덕분에 큰 힘을 받고 뛰어서 승격할 수 있었다. 벌써 마지막 경기가 찾아와서 좀 아쉬기도 하다. 이렇게 좋은 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시즌의 끝이 정해졌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올해 내내 좋은 기억을 많이 쌓았으니까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준비해서 더 강한 모습으로 팬들을 뵙는 것이 소망이다.



Q. 반대로, 인천이 유리한 위치에 있던 했지만 시즌 중반에 위기가 없지는 않았다. 언제가 위기의 순간이었고, 어떻게 극복했는가?

시즌 막판으로 흐르면서 부상자도 많이 나왔고, 전보다 성적도 내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던 이유는 준비가 잘 된 팀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개개인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팀이 추구하는 모델이 확고했고, 후보였던 선수들도 출전할 때 좋은 기량을 보여줬다. 모든 팀이 한 시즌 내내 꾸준히 좋기만 할 수는 없다. 그 위기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감독님이 항상 침착하게,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적으로 대해 주셔서 더 신뢰하고 따랐다. 밖에서는 경기력과 결과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안에서는 신뢰가 생기고 더 단단해졌다.

Q. 시즌 시작 전 인터뷰에서 팀의 리그 최소 실점을 목표로 언급했다. 지금 흐름이면 달성 가능성이 높는데 만족스러운가?

우선 기록상 좋은 수비력을 남겨서 감사한 시즌이다. 사실 실점하지 말아야 할 장면에서 점수를 내준 때도 꽤 있었다. 그런 점은 아쉬워서 100% 만족하지는 못한다. 그래도 성준이, (최)승구, (이)상기, (김)명순이 등이 모두 잘해줬고 특히 (김)건희는 나이도 어린 선수인데 든든하게 활약했다. (박)경섭이가 부상으로 중간에 빠졌지만, 모든 수비진이 책임감을 느끼고 경기에 임했다. 팀 전체로 봐도 스트라이커, 윙어까지 희생하면서 수비를 위쪽부터 도와줬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전술이었고, 그게 잘 맞아서 우승할 수 있었다.



'좋은 기억이 많은 팀' 인천과 함께 만든 새로운 기억들

Q. 과거 인터뷰에서 '인천에서 좋은 기억이 많았다'고 언급했었다. 이번 해를 거치면서 그 기억이 더 많이 쌓였는가?

물론이다. 어려운 시기에 합류해서 바로 승격을 달성하기가 절대 쉽지 않다. FC안양에서 뛰던 선수와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K리그2가 정말 힘들고 오히려 K리그1이 더 편하다고 했다. K리그2는 '높'과 같아서 쉽사리 이기기 어려웠고, 당연히 이겨야 하는 경우를 놓칠 때도 많았다고 이야기하더라. 이런 점을 올해 몸소 체험했지만, 우승하면서 좋은 기억을 쌓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기억은 팬들이다. 2022년에 인천에서 뛸 때 가장 아쉬웠던 때가 하나 있다. FC서울 원정 경기를 부상으로 나서지 못해서 관중석에 앉았는데, 팬들의 응원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못 뛰는 점이 정말 아쉬웠는데 올해는 많은 경기에 나서면서 좋은 시즌을 보냈다.

Q. 예비 신랑이라고 들었는데,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는가?

예비 신부님 덕분에 준비가 잘 되고 있다. 내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다. 예비 신부는 많이 힘들었지만 나는 수월하게 했다.

Q. 좋은 시즌을 보낸 후 결혼하게 돼서 타이밍도 좋은 것 같다.

맞다. 우승도 못 한 상황에서 청첩장을 돌리면 눈치 보이는데, 우승을 확정해서 마음 편하게 들렸다.



세계 무대 경험 백민규, 작년보다 더 많은 점을 배운 한 해

글 = 박범근 UTD기자(keu0617@naver.com)



2025년은 백민규에게 도전의 시즌이었다. 백민규는 올해 최승구와 함께 태극마크를 달고 U-20 월드컵에 나섰다. 세계 무대를 경험한 시간은 백민규에게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대표팀과 월드컵 경험을 장착하고 온 백민규는 다시 인천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서 조금씩 자신만의 색을 보여주고 있다. UTD기자는 한 걸음씩 성장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는 백민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Q. 프로 2년 차 시즌이 끝나가고 있다. 2025년은 백민규 선수에게 어떤 시즌이었나?

프로에서 2시즌밖에 보내지 않았지만, 작년과 비교해보면 다른 의미로 힘들었던 시즌이었다. 데뷔 시즌에는 축구만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했었다. 올해는 축구도 많이 배웠지만, 정신적으로 느낀 점이 많았다. 경기를 못 뛰고 있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많이 배웠다. 감독님, 코치님들께서 축구는 물론이고, 정신력 측면에서도 성장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다.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 많은 점을 배웠던 한 해였다.

Q. 올해 굉장히 바빴다. 개막 직전에 AFC U-20 아시안컵으로 중국에 갔다. 인천에 돌아와서도 중간마다 대표팀 소집을 다녀왔다. 또 최근에는 FIFA U-20 월드컵으로 칠레도 갔다 왔다. 체력, 정신적으로 힘들지는 않나?

체력적으로 힘든 점은 전혀 없다. 솔직히 말하면, 정신적으로는 힘들었다. 대표팀을 갔다가 인천에 복귀하면, 곁도는 느낌이 들었다. 소속팀에서 더 잘하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됐다. 올 시즌 동계훈련 중간에 AFC U-20 아시안컵 발탁으로 자리를 비웠었다. 다시 인천에 합류했을 때, 팀이 하려는 플레이를 내가 잘 맞추지 못해서 아쉬웠다. 대표팀에 갔다 오면, 나 자신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느낌이었다. 그래

도 좋은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경험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Q. 소속팀 인천에서 출전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대표팀에서도 U-20 월드컵 엔트리에 발탁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대표팀에서의 경쟁 힘들지 않았나?

2년 전인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2025 U-20 월드컵을 준비했다. 지금 U-20 대표팀의 첫 번째 소집 훈련에 뽑혔었다. 당시 코치님께서 첫 훈련에 뽑힌 선수 중 2년 뒤에 있을 U-20 월드컵 최종 멤버로 발탁되는 선수는 2~3명뿐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2~3명에 들고 싶어서 대표팀 소집 때마다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했다.

사실 나는 월드컵 멤버로 뽑히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나는 소속팀에서 경기를 많이 못 뛰고 있었지만, 리그에서 경기를 뛰는 같은 포지션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운 좋게 월드컵 직전 리그 2경기에 출전했다. 그 경기에서 좋은 인상을 심어 드린 덕분에 월드컵 엔트리에 발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험난한 경쟁을 뚫고 U-20 월드컵 엔트리에 발탁되었다. 직접 월드컵 무대를 밟았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

월드컵에서 많은 시간을 뛰지는 못했다. 그래도 월드컵에 참가했다는 자체만으로 큰 영광이었다. 성인 월드컵은 아니지만, 그래도 U-20 월드컵이라는 무대도 아무나 밟을 수 없는 대회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에 나섰을 때,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 관중에게 압도되는 느낌도 있었다. 이번에 월드컵을 경험한 덕분에 더 큰 무대를 가더라도 이번 U-20 월드컵을 생각하면서 긴장감이나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뛰면서 느낀 희로애락을 좋은 경험으로 삼겠다.

Q. 데뷔 시즌에는 강등의 아픔을 겪었고, 2년 차에는 승격을 맞았다. 팀의 강등과 승격을 모두 경험해 보면서 느낌 점은 무엇인가?

작년에 강등이 결정되는 경기에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명단에 들어서 경기장에 있었다. 인천에는 1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굉장히 슬펐고, 죄송했다. 강등이 나의 잘못이라 느껴졌다. 승격하고 돌아보니, 동계훈련부터 분위기가 작년과 많이 달랐다. 새로운 감독님, 코치님들이 오셔서 승격이라는 목표를 바라보고 시즌 준비를 잘했다.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북돋아 주시면서도 잘 안 될 때는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다. 당근과 채찍을 잘 나눠서 주셨다. 또, 좋은 선배들이 있었기에 승격할 수 있었다. 훈련장 안팎에서 형들을 보고 많이 배우고 있다. 팀 전체의 조화가 굉장히 좋았다. 인천이 승격해서 매우 기쁘다. 승격하고, 우승팀에서 팀원들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다.

Q. 승격확정 순간에 시복을 입고 있었다. 많이 아쉬웠을 것 같다.

아무래도 선수로서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분명히 크다. 더 잘해서 인천이 승격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었다. 우승이 확정된 경기에서도 기쁜 만큼이나 아쉬움도 컸다.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그 감정을 표현할 정확한 단어가 안 떠오른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좋은 형들과 함께 경기를 뛰면서 승격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다. 올해보다 작년에 더 많은 경기를 나눴다. 그래도 지난해보다 이번 시즌에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다양한 경험을 했고, 새로운 감정도 느껴본 1년이었다.

Q. 올해 리그에서는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하다가 26R 충북청주전과 27R 충남아산전에 연이어 선발 출전했다. 시즌 중반에 기회가 잡았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올해 초에 U-20 아시안컵을 다녀오고 나서 솔직히 기회를 조금은 주실 것으로 생각했다. 코리아컵 경기에 출전했지만, 잘하지 못했다.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좌절하기도 했다. 시즌 중반까지 경기에 나가지 못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팀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도 저 자리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불타올랐다.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훈련할 때 예전보다 더 열심히 했다. 경기를 뛰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갖추고 훈련에 임했다. 시즌을 치르면서 왼쪽 측면 자리에 여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경기에 될 기회가 왔다. '후회 없이 뛰자'라는 각오로 경기에 나섰다.

Q. 2025시즌도 이제 1경기 남았다. 마지막 최종전에서의 목표는 무엇인가?

올 시즌 목표가 데뷔 골이었다. 마지막 경기를 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최종전에 출전한다면, 평소보다 골 욕심을 조금 더 내고 싶다.

Q.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나는 많이 부족한 선수다. 솟기도 없고, 말도 많은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나라는 선수를 응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 팬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승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팬분들의 응원이 있기에 힘을 내서 공을 찬다. 올 시즌에도 많은 응원에 감사드리다.

Q. U-20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첫 경기 우크라이나전 1경기밖에 못 뛰었다. 아쉬움은 어느 정도인가?

출전 시간에 개인적인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선수라면 당연히 아쉬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플레이를 수행하는 점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어느 감독님을 만나더라도 감독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잘 따라서 뛰는 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 그래도 월드컵에 선수로 다녀왔다는 점 자체가 나에게서는 좋은 경험이었다.

Q. U-20 월드컵을 통해 배운 점은 무엇인가?

전 세계에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고 나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우리나라 대표팀 친구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그 친구들의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나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을 배웠다. 대표팀 안에서 선수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자 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부족했다고 느꼈나?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적극성이 많이 떨어졌다. 공격 상황에서는 과감함이 부족했다. 수비에서는 '공을 뺏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뛰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세계 무대를 쉽게 생각하기도 했다. 스스로 자만했다. 나를 되돌아보는 경험이었다.

Q. 연령별 대표팀에서 훈련하고, 경기해 왔던 여정은 U-20 월드컵이라는 대회 때문이었다. 그 월드컵이 끝난 기분은 어떤가?

U-20 월드컵을 2년 동안 준비했다. 내가 대표팀도 자주 발탁되고, AFC U-20 아시안컵과 같이 중요한 대회도 참가해서 월드컵까지 탄탄대로를 걸었다고 보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 내 속마음은 항상 힘들었다. 매번 대표팀 훈련이 치열했다. U-20 월드컵에 가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뜨거웠다. 그래서 한 번 못하면 많이 우울해졌고, 반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틀렸었다. 일희일비하는 순간들이 많았다.

U-20 월드컵 16강 모로코전이 끝났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은 '허무하다'라는 느낌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결말이 아니었다. 8강에 올라가지 못한 아쉬움과 허무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솔직히, '이러한 감정을 느끼려고 지금까지 힘들게 달려온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월드컵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의 결말이 많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Q. U-20 월드컵이 끝난 지 1달이 조금 넘었다. 대회 마지막에 느꼈던 감정은 정리되었나?

지금은 감정을 잘 정리한 것 같다. U-20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대회가 끝난 뒤의 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오로지 월드컵만 바라봤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1~2주 동안은 팀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도 운동장 밖에서는 U-20 월드컵의 여운이 있었다.

2주 정도 지나고 마음가짐을 다시 세웠다. 올해가 내 축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 U-20 월드컵을 치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결과의 아쉬움보다 준비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에 집중했다. 내 나이에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 U-20 월드컵을 준비하는 동안 기본 날도 많았다. 대표팀에서



인천 승격의 주역들을 소개합니다

글: 이환희 UTD 기자(hwanhee515@naver.com)

인천이 K리그1으로 돌아간다. K리그2는 ‘뉴’이라고들 말하지만, 인천에는 통하지 않는 말이였다. 시즌이 끝나기 전에 이미 우승을 확정했고, 마지막 홈 경기에서의 우승 세리머니만을 남겨두고 있다. 팬들이 염원하던 승격을 이룬 승격 주역들의 이번 시즌 활약을 돌아본다.



K리그2를 압도한 무-제-바

개막하기 전부터 인천의 외국인 공격수들은 K리그2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예상은 현실이 됐다. 마지막 경기를 앞둔 시점, 무고사는 인천 입단 이후 첫 20골과 함께 리그 득점 1위이며, 제르소는 12골 10도움으로 10-10을 달성했다.

특히 이 선수들은 승격 최대 라이벌이었던 수원삼성과의 경기마다 활약했다. 무고사는 홈에서 열린 두 번의 수원전에서 모두 득점했고, 제르소와 바로우는 수원 원정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선두 경쟁에서 중요한 승점을 벌어들였다.



이들의 호흡을 보여준 최고의 장면은 1라운드 충남아산 원정경기 제르소의 득점이였다. 후방의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은 이후 전방의 바로우에게 공을 보냈고, 무고사가 수비를 유인한 덕에 바로우의 정확한 크로스를 제르소가 편안하게 마무리했다. 외국인 공격수들의 압도적 기량으로 시즌 내내 상대 수비들을 괴롭힌 결과, 조기 우승이 가능했다.



전술의 핵, 박승호

프로 3년 차에 리그 37경기에 출전해 9골 1도움을 기록 중인 박승호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올해 박승호는 공격포인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활약을 보였다. U-22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활동량을 통한 전방 압박뿐만 아니라 연계 능력까지 갖추며 팀 전술의 중추 역할을 했다.

지난해 박승호는 공격과 중원을 오가며 출전했다. 지난 시즌 초반엔 공격포인트를 기록했지만, 갈수록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며 공격에서의 활약도가 줄었다. 올해는 4-4-2 포메이션에서 무고사의 파트너로만 고정적으로 출전하면서 일관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무고사-제르소-바로우는 K리그1에서도 상급 공격 자원들이지만, 모두 30대 베테랑 선수들이다. 상대방을 전방에서 압박하는 박승호의 역할이 없었던다면 외국인 선수들의 공격포인트 생산력이 지금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상대 진영에서 압박뿐만 아니라 득점 잠재력도 터뜨렸다. 프로 데뷔 이후 한 시즌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 특히 수원삼성 원정에서의 멀티골이 하이라이트였다. 윤정환 감독 역시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박승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장이자 핵심 미드필더, 이명주

올해 인천은 시즌 내내 선발 명단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다만 중원은 변화가 많았는데, 그 외중에도 주장 이명주는 34경기에 나서면서 시즌 내내 든든하게 한 자리를 책임졌다. 중원 조화 변화를 살펴보면, 1라운드엔 김도혁-이명주 조합이었지만 이내 포지션을 변경한 민경현이 주전으로 발돋움했다.

민경현이 6월 입대로 이탈하면서, 문지환이 자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수원 삼성 원정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는 등 4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지만, 김포 원정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이후로는 정원진과 최승구가 번갈아 이명주의 짝으로 출전했다.

이명주는 이번 시즌에만 4~5명의 선수와 중원에서 호흡을 맞췄지만, 함께 뛰는 동료가 누구든지 안정적인 경기력과 여전히 왕성한 활동량으로 팀을 이끌었다. 특히 시즌 초반 K리그2의 거센 몸싸움에 선수단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장으로서 상대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솔선수범을 보였다.

우승이 확정된 경기에서 이명주는 “작년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아픔을 겪었지만, 주장 완장이 의미하는 책임감을 내려놓지 않고 곧바로 팀을 승격으로 이끈 이명주는 경기장 안팎에서 모두 확실한 우승의 주역이다.



전 경기 출전-리그 최다 베스트11, 김건희

센터백 김건희는 인천에 없었던 안 될 존재가 됐고, 실제로 이번 시즌 단 1분도 피치 위에 없었던 적이 없었다. 지난 시즌 U-22 자원으로서 28경기에 출전하며 경험을 쌓았고, 올해는 명실상부한 팀의 첫 번째 센터백이다.

현재 출전 시간은 3,842분으로 공동 1위이며 주간 베스트11에는 12번으로 리그에서 가장 많이 선정됐다. K리그2에서는 최고의 센터백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패스나 클리어링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긴 했지만, 확실한 장점으로 탁월한 1대1 대인 수비와 롱패스 능력을 갖췄다. 성남 원정에서는 프로 데뷔골까지 기록했다.

경기 내에서 활약도 뛰어났지만, 부상 없이 시즌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승격에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앙수비 포지션 역시 부상 문제가 발생했지만, 김건희의 자리만은 시즌 내내 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홈에서 열리는 마지막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끝까지 뛰다면, 전 경기 풀타임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된다.



리그 최다 클린시트 골키퍼, 민성준

민성준은 지난 3시즌 동안 리그에서 17경기에 출전했고, 3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이번 시즌엔 30경기에 출전했고, 리그에서 가장 많은 15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프로 입단 이후 첫 주전 골키퍼 시즌을 성공적으로 보냈다. 민성준의 선방에 힘입어 인천은 현재 리그에서 유일하게 팀 30실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민성준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에 발탁됐을 정도로 실력 있는 골키퍼였지만, 인천엔 기량이 출중한 선배 골키퍼들이 항상 많았다. 김동현, 이태희, 이범수라는 큰 산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마침내 이번 시즌 주전으로 손색없는 골키퍼라는 것을 증명했다.



전술을 완성시킨 풀백, 이주용&김명순

돌아온 이주용에 대한 팬들의 우려는 부상 여부였다. 실력은 의심할 것 없지만, 지난 2022시즌 임대 시즌에 부상으로 10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걱정이 무색하게 올해 이주용은 건강했다. 리그 35경기에 나서면서, 팀의 빌드업에서 중심 역할을 했다.

올해 인천은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으로 나왔지만, 후방에서 공을 잡고 공격 작업을 할 때는 3-3-4 대형을 이룰 때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이주용은 두 센터백과 함께 안정적인 볼 배급 능력으로 팀에 기여했고, 반대쪽에서 뛰던 오른쪽 풀백 김명순은 한 칸 올라가 중원에서 팀에 활력을 더했다.

측면 수비수가 중원에 가담해 공격과 수비를 모두 신경 쓰는 건 쉬운 플레이가 아니다. 높은 전술 이해도와 체력, 기술, 동료들에 대한 이해도가 동반되어야 가능한 역할이다. 김명순은 새로 입단한 팀에서 새로 만난 감독의 전술임에도, 그 역할에서 최고의 활약을 했다. 부상으로 시즌 마지막을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내년이 기대되는 선수다.



부임 첫 시즌에 우승, 윤정환 감독

창단 이후 처음으로 K리그2에서 경쟁하는 인천을 곧바로 우승으로 이끌었다. 앞서 서술한 승격 주역들이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윤정환 감독의 통솔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즌 초반부터 확실한 게임 모델로 다른 팀들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며 초반에 많은 승점을 벌여오는 데 성공했다.

이후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이어지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었지만, 윤정환 감독은 대안을 찾으며 1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2위와의 승점 차도 계속해서 7점 이상으로 벌어두며 이르게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플랜A가 무너지더라도 적절한 대처를 계속해서 보여주며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했다.



‘Be United, Be the One.’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하나의 팀으로 하나의 목표를 세웠던 인천유나이티드가 시즌이 끝나기도 전인 36라운드 경남FC와의 맞대결에서 다이렉트 승격을 확정 지었다. 올해 마지막 경기이자 홈팬들과 K리그2 우승 세리머니가 예정된 39라운드 충북청주전. 시즌 내내 뛰어난 활약으로 여러 번 이름이 오르내린 선수 외에도 매 경기 현장을 함께한 UTD 기자단이 한 번 더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 숨은 주역들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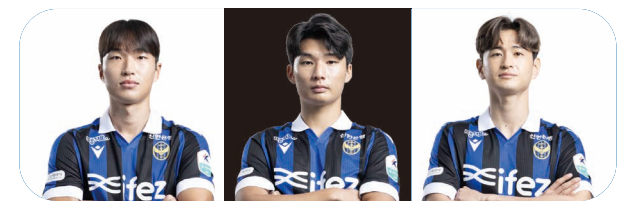
‘MOM’ 활약 뒤엔 항상 그가 있었다. 권찬수 GK코치

7라운드 충북청주전 ‘원더골’의 주인공 이동률은 골 직후 윤정환 감독이 아닌 권찬수 코치의 품에 가서 안겼다. 이동률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권찬수 코치와 함께 공식 훈련 후 슛 관련 원포인트 레슨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찬수 코치는 37라운드 부산아이파크와의 홈경기에서 1년 만의 복귀전을 치르게 된 이범수를 위해 휴가 중에도 시간을 내 추가 훈련을 돕기도 했다. 특별한 활약을 펼쳤던 두 선수의 입에서 나온 이름인 만큼, 그를 위해 함께 아끼없는 박수를 보내는 것도 좋겠다.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박경섭·이동률·문지환

박경섭 - 올 시즌 신인으로서 첫 매거진 루키 인터뷰로 당찬 출사표를 내던 진 수비수 박경섭은 시즌 초중반 김건희와 함께 센터백 한 자리를 지켰다. 팬들에게 인천의 젊은 수비라인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기도 했던 박경섭은 10라운드 김포FC를 상대로는 전반 45분 깜짝 데뷔골을 기록



하기도 했다. 올해 처음 리그에서 모습을 선보인 박경섭의 활약은 리그 최소 실점 1위의 기반을 마련하며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했다.

이동률 - 지난겨울 이적한 이동률은 개막전부터 교체 투입되며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수를 공략하는 움직임으로 올 시즌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이동률은 6라운드 화성FC전 결승골을 시작으로 7라운드 충북청주전 중거리 원더골, 8라운드 천안시티전 후반 추가시간 뽀개골까지 세 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시즌 초 인천이 기세를 몰아치는 데 조커 역할을 톡톡히 했다.

문지환 - 올 시즌 팬들의 가장 아픈 손가락을 꼽자면 가장 먼저 이름이 떠오를 선수다. 윤정환 감독의 전술을 뒷받쳐줄 중원 자원 하나하나가 소중한 가운데 문지환은 교체부터 선발까지 인천의 허리를 든든히 지키며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 춘천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뽀개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16라운드 김포와의 원정 경기서 선발로 출장하며 후반 추가시간에 극장골을 기록, 패배의 문턱에서 인천을 구하는 승점 1점을 만들어냈다. 문지환이 만든 이 승점 1점이 결과적으로 인천의 빠른 승격 확정을 이끌었기에 더욱이 소중한 따름이다.

이 외에도 포지션을 바꿔가며 팀이 필요한 역할을 해줬던 김성민·최승구·신진호부터 시즌 중반 합류에도 굶은일을 마다치 않던 정원진, 김건용 그리고 매번 열정을 다해 지도하는 목소리가 들렸던 이호, 정혁, 아벨코치까지 기억하고 싶은 이름이 많은 한 시즌이었다. ‘다시 우리의 자리로’, 목표했던 바를 이룬 기쁜 한 해를 만들어준 모든 인천유나이티드 구성원과 매 경기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줬던 파랑검정 팬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인천유나이티드 2025 K리그2 우승



2025 K LEAGUE 2

WINNERS

We UNITED & We Are THE ONE

2025시즌 인천유나이티드
직관의 감동을 계속 느끼고 싶다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카카오TV·네이버TV
채널을 구독하세요!

인천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IUFC TV

